

전투복에 면사포… 전장에서 올린 결혼식



▲ 사진=stripes.com

우크라이나 의용군 연인이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결문소 잔디밭에서 의용군 연인의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군복을 입은 연인은 전우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커플은 전쟁 전 회사원이었던 신부 레샤 필리모노바와 사업가였던 신랑 발레리 필리

모노프로 이들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TDF)에 합류했다.

비록 전쟁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우들 도움으로 뜻 깊은 결혼식을 올렸다. 전우들은 조촐한 피로연을 마련했고, 유명 음악가 타라스 콤파니첸코는 전통악기 리라를 연주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수도 전역이 불바다가 된 이후 참 전했다.”면서 “두 사람은 나라를 지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신부는 레샤 필리모노바는 “의용군 합류도, 결혼도 모두 의도적으로 한 선택이었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적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면서 “폐허가 된 도시, 뿔뿔이 흩어진 가족과 친구, 이르핀과 부차 등 키이우 전역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 가슴을 울린다.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쓰라리다.”고 말했다.

찜통 트럭에서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찜통같은 트럭 짐칸에 실린 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여성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숨진 여성은 임신 중이었다.

지난 5일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주 몽클로바에서 화물트럭에 실린 채 버려진 미국으로의 밀입국 시도자 64명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해당 트럭 짐칸에는 니카라과 국적의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임신부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부전(단기간에 여러 장기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되는 현상)으로 태아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밀입국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화물트럭 짐칸에 사람들을 빼곡하게 태운 채 이동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는



▲ 사진=confidencial.com.ni

등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트럭을 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다반사다. 이번에 발각된 이민자 트럭의 브로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국이 트럭을 발견했을 때 브로커는 달아난 후였고, 트럭 화물칸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트럭에는 숨진 임신부를 포함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쿠바 출신의 이민자 100여 명이 실려 있었다. 일행 속에는 어린이 7명도 있었지만 물도, 환기장치도 없었다. 게다가 트럭은 섭씨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환경에 버려졌다.

트럭 화물칸에서 구조된 이민자 중 최소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부분은 심각한 탈수증 진단을 받았다.

아내 유골 담은 인형과 함께 사는 남자



▲ 사진=dantri.com.vn

베트남 광남성 하람 지역에 살고 있는 르반 씨(68)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유골을 석고 인형으로 만들어 함께 살고 있다.

르반 씨는 지난 1975년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와 결혼한 뒤 7명의 자녀를 낳고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2003년, 타지에서 일을 하던 중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와 작별할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하고 아내를 땅에 묻어야만 했다. 르반 씨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장례 후 20개월 동안 무덤가에서 지냈다. 급기야 아내의 무덤에 굴을 파고 지내려고 계획했지만 자식들에게 들통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럴수록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2004년 11월의 깊은 밤, 그는 아내의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내와 아내의 체형과 같은 크기의 석고상을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은 아내의 ‘석고 인형’에는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매니큐어를 발라 안방침대 위에 눕혔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매장할 것을 요구했다. 주변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각을 질타했고, 지방 당국도 아내를 다시 매장하라고 경고했지만 르반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데려갈 수 없다.”면서 완강히 버텼고, 결국 모두가 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플러튼 / 부에나팍/ 얼바인/다이아몬드 바 & 기타 OC 전지역 믿고 찾는 TOP 에이전트 “제이 김” 확실합니다 !!!



리스팅, 바잉 & 1031 Exchange 전문
주택매매, 렌트/커머셜/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제이 김 Jae Young Kim
DRE #: 02110841
Realtor®
C. 714. 948. 0638
Jaykim@newstarrealty.com

뉴스스타부동산 명예 부사장
Member of CAR (California Realtor Association)
Member of NAR (National Realtor Association)

플러튼 \$58만	다이아몬드바 \$50만	터스틴 \$63만	부에나팍 \$59만 9천
방2 화3 약 1016 SQFT 이층 콘도, 2 차고, 좋은 구조, 공원과 한인상권 인접, 렌트주기 좋음	방2 화3 약 1250 SQFT 이층 타운홈, 낮은 관리비, 핫한지역, 2 차고, 좋은 구조, 렌트주기 좋음	방3 화3 약 1220 SQFT 이층 타운홈, 예쁜 뒷마당, 차고 조용하고 안정된 단지, 좋은 상권	방3 화2 약 1320 SQFT 이층 콘도, 2차고, 한인상권 인접, 마루바닥, 써니힐 학군, 낮은 관리비
플러튼 \$79만 5천	다이아몬드바 \$65만 천	오렌지 \$75만 8천	부에나팍 \$82만
방3 화3 약 1765 SQFT 이층 타운홈, 2 차고, Fwy 57 인접, 마루바닥, 낮은 관리비, 좋은구조	방3 화2 약 1250 SQFT 이층 타운홈, 2 차고, 포텐셜 많음, 마루바닥, 교통편리, 학군좋음	방3 화3 약 1770 SQFT 이층 타운홈, 2 차고, 빌라팩 인접, Fwy 55번 인근, 밝고 환한 구조	방4 화3 약 1560 SQFT 단층 단독주택, 2차고, 밝고 환한, 좋은학군, Fwy 91 번 인근
플러튼 \$85만	다이아몬드바 \$105만	오렌지 \$87만 5천	부에나팍 \$92만 5천
방3 화3 약 1130 SQFT 이층 타운홈, 2 차고, 골프장과 쇼핑몰 인접 마루바닥, 전체 업그레이드	방4 화3 약 2350 SQFT 이층 단독주택, 조용한 주택가 3 차고, 마루바닥, 한인 선호지역	방3 화2 약 1620 SQFT 단층 단독주택, Move in condition 2차고, 좋은학군, 넓은 뒷뜰	방3 화2 약 1740 SQFT 단층 단독주택, 넓은뒷뜰, 좋은구조, 2차고, 넛츠베리팜 인근, 선호지역